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7056)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 TEL 02-596-3171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www.opendoors.or.kr

■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7월 1일

북한 개발소식

07

2018 July

통권 153호

| 이달의 주제 |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전망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 개발 소식** 2018 July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전망



	01 권두칼럼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전망	09 칼럼 1 · 송영대 북한 핵 문제와 크리스천 의 자세	14 칼럼 2 · 문성묵 북한 비핵화 없이는 한반 도 평화체제도 불가하다
20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5)		25 북한소식	
30 서평 3층 서기실의 암호		40 기도제목	

8.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라디오를 청취하는 성도들과 주민들을 생각할 때 송출되는 전파가 깨끗한 음질로 현장에 전달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픈도어 라디오 사역을 비롯하여 극동방송과 북방선교방송 등 동역하는 라디오 사역 단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송출되는 전파가 깨끗하고 선명하게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상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9.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해 한반도 복음화와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정세 변화에 비해 교회 현장에서 북한이나 통일은 아직 너무 먼 주제인 듯합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www.opendoors.or.kr

* E-mail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7월 1일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전망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18년 6월 12일 전 세계의 눈이 싱가포르로 향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악수하는 희대의 장면이 펼쳐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비난하고 위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전쟁을 걱정하던 한반도에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특별히 북핵 폐기와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회담 치고는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구는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수준과 방법,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 6자 회담때나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당시보다도 못한 비핵화 논의 수준에 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번 회담이 이전 북한과의 협의 및 협약과 같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긴 기간 계속될 북핵 폐기 관련 세부 협상과 실제 폐기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의 북핵 문제 관련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6월 13일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찬을 마친 두 정상이 산책로를 걷고 있다(출처: VOA)〉

평화의 시작, 그러나 길길이 멀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되었고 각종 경제협력과 특별히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남북 정상을 통해 이야기되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도 예정되어 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및 휴전선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에 대한 후방 철수 논의 등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한창 전쟁 이야기가 나돌던 때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그렇지만 그간 북한과의 대화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다. 그간 북한과의 회담과 협상 중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핵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고 실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 결국 관건은 비핵화이다.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를 하자’는 원론적인 선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린 것뿐이다. 실제적인 비핵화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현재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해법으로 가장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를 통한 동시적인 핵폐기 방안이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북핵을 폐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 지불 등 이행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기한을 1년 내에 속전 속결로 이뤄내야 한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으며¹,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북미회담 다음날인 6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년 반 안에 중대한 비핵화(major disarmament)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².

그렇지만 단시일 내 북핵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 폐기 사례를 보면 IAEA가 100여차례 사찰을 통해 6기 가량의 핵무기와 관련 정보를 모두 폐기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2년 반이다. 남아공 핵 폐기가 이루어진 90년대 초반 당시는 공산권 붕괴 등 변화된 국제환경으로 남아공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경감되었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과 넬슨 만델라의 민주화 운동 등의 여파로 부담을 느낀 남아공 정부가 핵폐기에 적극 협조하면서 상당히 순조롭게 핵 폐기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폐기에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핵 폐기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무작위 강제 사찰이 가능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고, 특히 북한은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이 아니더라도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외부세계에 공개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은 만큼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사찰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³.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쾨버그(Koeberg) 핵발전소〉

북핵 폐기를 장기적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어느정도 핵 폐기 제스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과, 즉 경제 제재 철폐, 주한 미군 철수, 각종 경제사업 유치 등을 얻어내고는 결국 결정적인 단계에서 핵 폐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북한은 핵 폐기 절차를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핵 능력을 축소하며 각각의 단계에서 보상을 받은 후, 합의를 뒤엎는 ‘살라미’ 전술을 써왔다. 만에 하나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미국이 신경 쓸 부분만 폐기하고 여전히 핵을 보유한다거나 핵 확산 방지 또는 핵 동결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남한은 결국 계속해서 북핵의 위협을 받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남한이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의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확고한 안보 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핵폐기를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 또 북한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핵 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제재 및 군사적인 압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 조선일보, “트럼프의 조건은 1년내 북핵 폐기” (18.04.21)

2 자유아시아방송, “폼페이오 ‘2년반내 비핵화 희망...협상중단시 한미훈련 재개’” (18.06.13)

3 자유아시아방송, “태영호 “북, CVID 수용 가능성 낮아... ‘현재 핵’ 유지 전략” ” (18.05.02)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연합훈련 일시 중단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들어준 만큼 북한 측에서도 그만한 전향적인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비핵화 추진에 탄력을 주는 조치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비핵화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양보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번 회담 결과 및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미뤄 볼 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동력이 많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⁴. 어떤 경우라도 한미 군사 공조와 군사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서는 안될 것이다.

북핵과 북한 체제

최근의 남북 및 북미간 대화는 북핵 폐기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핵문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로서 이 문제가 불편한 이유는 북한이 핵 폐기의 대가로 자신의 체제, 구체적으로는 그 정권 보장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핵 폐기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아무리 엄격한 사찰을 시행하더라도 북한이 작정하고 몇 기의 핵 탄두나 우라늄 농축시설을 숨기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언급하며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나 평화체제 구축 등 국제적인 보장을 통해 북한에게 핵 보유가 필요없을 정도의 체제보장을 제공해 주어 핵 보유 동기 자체를 제거해 줄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⁵. 북핵 폐기의 진행과 검증의 어려움 때문이라도 결국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지도부의 선택은 어찌보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핵은 대화의 수단이지 그 자체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체제가 안정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핵을 이용해서 위신과 돈, 그리고 명분과 교환하겠다는 김정은의 시도는 꽤 그럴듯해 보인다. 당장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김정은의 제안이 상식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은 심란할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은 기존의 종교적인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여전히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특별히 김정은은 무자비한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극심한 기독교 탄압 역시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 핵

포기를 대가로 안위를 보장한다는 것은 자칫 폭정을 자행하는 독재정권이 핵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체제를 공고히 하는 불편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핵폐기 조건으로 내 걸었던 타 국가의 사례와는 달리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안전 보장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회담문에 대해 북한이 요구하는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가 삽입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됐으면 좋았겠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선부른 비판론을 경계했다⁶. 그렇지만 북한이 체제보장 없이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한 만큼 핵 폐기와 체제 보장의 수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 등 북한 사회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의 확대와 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 중단,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권 개선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남북교류의 여건은 기회로 활용하자

북한 사회의 변화를 생각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 교류 활성화 이슈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에서 정치 분야나 군축, 인권 분야는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러나 인도적인 지원이나 교류, 경제협력 분야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핵포기의 대가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약속하기도 했다⁷. 현재 주로 논의되는 분야는 남북간 철도 연결을 통한 유통, 물류 라인 개통과 러시아 송유관 연결 사업 등이다. 개성공단 재계 및 새로운 경제협력지구가 다수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⁴ 우정엽, 2018,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북미관계 변화 전망”, 세종연구소 정책과 정책 (2018-7호), p 11.

⁵ 홍현익, 2018,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전망”, 세종연구소 정책과 정책 (2018-7호), p 7.

⁶ SPN 서울평양뉴스, “북한 전문가들 ‘트럼프, ‘완전한 비핵화’를 CVID로 해석’...회담 평가 엇갈려”, (2018.06.12)

⁷ 한국일보, “폼페이오 “북한, 완전한 비핵화 동의 땀 미국 민간투자 허용” 파격카드”, (18.05.13)



〈개성공단 전경 (자료사진)〉

경제 협력은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접근이 어려웠던 북한에 대한 문이 열리는 이때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남북 교류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해본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에서 보다는 북한 사회변화와 통일을 생각해서이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최근의 북한 경제 상황에서 보이듯 경제 분야의 발전은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시민사회 형성의 기틀을 제공해준다. 또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외에도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 몰려오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문제 등 기존의 북한의 통치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일들도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북한의 시스템도 변화해 갈 가능성이 있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급격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어도 십년 이상의 경제적 조정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통일 이전에 북한 내 인프라가 확충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개선된다면 통일의 장애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인적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 또한 줄여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경협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북한을 투자처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그곳의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며 무엇이 효과적인 방안인지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북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주도의 시장화와 당국 주도의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 우리의 원칙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월 18일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북한연구소의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는 주제의 공동학술회의에서 “(북한)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과 (경제) 체질도 변화했다”면서 “(때문에) 북한 측의 변화와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한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도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통한 새로운 남북 경협의 패러다임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⁸.

경제 협력이 북한 주민의 생활과 별개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경협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인권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경제 협력은 인권 문제는 별개가 될 수 없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국가별 투명성이나 인권에 대한 사항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와 사회가 투명하지 않고 이를 감시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 문제 등 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남북 교류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참여한 3세대 휴대전화 네트워크 개통식 모습. 오라스콤은북한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지만 북한 측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환전을 외화 부족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갑작스러운 몰수로 투자한 기업들의 설비를 빼앗겼던 사례나 북한 내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약 6억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100억에 이르는 현금 수입이 있지만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라스콤의 경우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철도나 송유관 같은 사업의 경우 정치적 상황이 변하게 될 경우 북한 정권이 이를 활용해서 남한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해외 투자와 기업 유치가 불가능 할 것이고 경제 협력의 효과는 기대보다 미비할 것이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또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기

⁸ 데일리NK, “전문가들 “남북경협 과정에서 北 변화 먼저 반영해야” ” (18.06.18)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 투명성 제고 및 인권 상황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 협력을 북한이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결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북미 회담은 새로운 한반도 정세의 시작점이다. 북한 지도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고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회복하고 정치적으로도 자유와 인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해볼 때 고무적인 움직임이다. 다만 앞으로의 회담과 대화가 단순히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핵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폭정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일이 시작되길 바란다. 특별히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낙관적인 기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 협력과 교류, 그리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꼭 각국 정부만 이 일의 주요 행위자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각 정부가 맞지만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도 북한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반도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명심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더욱 치열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



북한 핵 문제와 크리스천의 자세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신촌성결교회 원로장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세계인의 관심 속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마침내 끝났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회담이 지난 25년 동안 한반도를 무겁게 짓눌러온 북핵 공포를 걷어내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썩 실망스러웠다. 회담 후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전략에 끌려감으로써 북한 핵 폐기 문제는 완전히 날아갔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내적으로도 회담 결과를 극찬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대부분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필자도 회담의 모습은 화려했으나 그 내용은 부실했다고 생각한다.

회담 전 미·북의 입장

이번 회담의 예상 의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폐기와 이에 따른 보상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이었다. 우선 핵 문제에 관해서는 비핵화 개념에 대해 쌍방 입장에 큰 차이가 있었다.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는 달리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그간 한·미가 생각했던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의 포기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를 규정해 왔다. 미국이 훈련을 명분으로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B-1-B, B-52, 전략폭격기 및 F-22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남한지역에 투입하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는 한편 미군기지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핵화 방법과 관련, 미국이 단기간내 비핵화와 이를 위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주장한데 반해 북한은 C.V.I.D는 무시한 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결과 핵 폐기를 목표로 설정한 미국과는 달리, 북한은 핵 군축을 협상목표로 삼아왔다.

또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 미국이 북한 보유 미사일 가운데 중,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한해 폐기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면서 이번 회담 의제로 삼을 뜻을 분명히 했다.

회담 결과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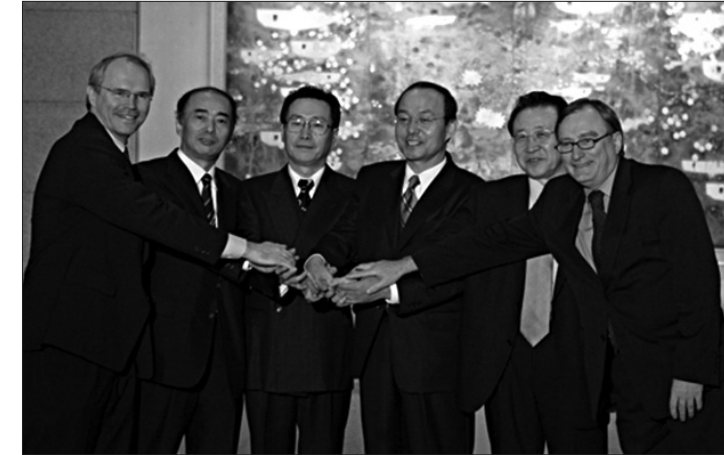
그러나 미·북정상회담의 서명이 담긴 6.12 합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함으로써, 북한 핵 폐기 희망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오로지 한가지,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회담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합의문 속에 북한 핵폐기 시한(時限)과 C.V.I.D 라는 핵폐기 원칙이 명확히 담기느냐 두 가지였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빠지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동일하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과거 김일성 때부터 주장해온 것이며 그 내용도 한·미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빠른 시일 내에 핵 폐기'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회담 전날까지 C.V.I.D 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발표된 합의문 속에 북한이 언제까지 핵 폐기를 한다는 시한은 물론 C.V.I.D 라는 표현도 아예 합의문에서 실종됐다.

그러다보니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지난 2005년 9월 19일 채택한 6자회담 공동성명보다 후퇴하는 결과가 됐다. 6자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과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북한 인권 탄압과는 상반된 말까지 했다.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다" 면서도 "언젠가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북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고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I.C.B.M 시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해제 시기에 대해, 비핵화가 20% 정도만 이루어져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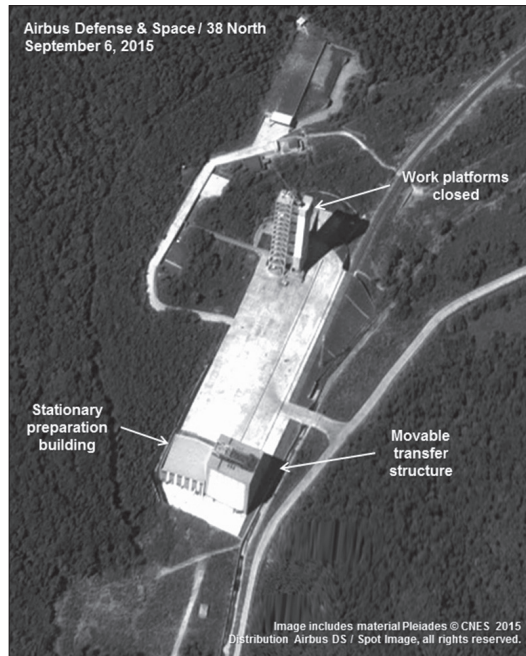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6개국 대표들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손을 맞잡고 축하하는 모습. 이 합의에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경수로 제공 등 구체적인 보상안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미국의 제재에 따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자금 동결 사태 등으로 인해 1년을 가지 못하고 파기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핵을 버리게 할 가장 큰 압박 협상카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폐기에 시동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겨주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로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의 형해화(形骸化)를 가져올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철산 I.C.B.M 시험장 폐쇄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가 장착된 I.C.B.M(사거리 1만km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I.C.B.M 시험장 폐쇄로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이 사라진다면 미국의 안보이익은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해, 회담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을 제외한 중,단거리 미사일 1천여 발과 그 미사일 위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50여개를 계속 보유하는 사태는 우리 한국에게 최악의 안보불안 상황이 된다. 여기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겹쳐질 경우 한국의 안보태세는 핵을 가진 북한 앞에 별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모습. 오른쪽 아래 건물이 미사일 조립동이고, 왼쪽 위는 미사일 발사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북은 '6.12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김영철과 다시 만나고 트럼프와金正은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회담을 하겠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대북 경제제재가 그나마 작동하는 현 상황에서 얻어낸 것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임기가 줄고 제재 이행이 약화된 이후, 더 많은 양보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단계별 ·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신고→사찰→검증이라는 단계를 설정한 후 매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포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이 과거 25년 간 미·북 협상에서 적용한 협상 전술로 미국, 한국 등으로부터 단물을 빼먹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핵을 숨겨놓고 판을 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와 함께 평화 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교류 협력을 비롯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대북 경제협력을 본격화 할 경우, 평화무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폐기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며, 신기루를 쫓는 것이나 다름없다.

크리스천의 자세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실체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허구적 평화가 아닌 실제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핵 있는 평화' 전술의 먹잇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흥분을 벗어나 냉정과 차분함을 되찾아야 한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생활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 위협을 과소평가하며 평화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선동했다. 평화에 도취된 시드기야 왕은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는 배척하고 '하나냐'의 말만 믿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이 시대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도 불가하다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

2018년 들어 한반도에는 중요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불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도 북한의 참가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남북간에는 특사를 교환한 끝에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도 채택되었다.

6월 12일에는 북미간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호텔에서 열렸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이어오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회담을 연 것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 회담에서 6.12 공동성명도 채택되었다.

잇달아 열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 핵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현재의 안보상황을 진단한 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불구, 북한 비핵화 합의 미흡

4월 27일 남북정상이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6.25 전쟁이후 첫 번째

일이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당일 우리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극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감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합의는 하고 이행하지 못했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서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발표된 판문점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는 들어갔지만, 누가 비핵화를 한다는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는 모호한 내용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남북교류와 협력관련 내용은 상세히 들어갔다. 철도도로 현대화를 비롯해 개성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 물론, 우리가 원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금년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사실 회담 개최 이전 통일부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가 주요의제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핵문제 해결 관련 구체합의를 기대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13개 조항 중 비핵화 관련 조항은 단 1개에 불과하고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북핵문제는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럴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한때 난기류가 흘렀다. 5월16일 개최하기로 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 이유로

이미 진행되고 있던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터를 들었다. 판문점선언에 적대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태영호 공사)의 국회강연도 문제 삼았다. 소위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갖도록 문재인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2015년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들에 있어 남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문재인정부와 다시 마주앉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변화된 줄 알았더니 역시 변한 것이 없다는 한숨이 나왔다.

이 사실을 의식한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을 전격 만나자고 제안하여 5월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잠깐 빼겨서였던 남북대화를 바로잡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남북 쌍방은 6월1일 고위급회담을 다시 열어,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 일정에 합의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CVID 합의는 실패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북미정상회담은 기대 이하의 결과로 끝이 난 것 같다. 6월12일 09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오찬과 공동성명 발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공동성명에는 4개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③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④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 이다.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누차 강조해 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표현은 북한이 끝내 거부하여 누락되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임을 강조해 왔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에 합의하고, 북한이 원하는 관계개선과 평화체제구축에 합의해 준 것이다.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회담을 마치고 1시간 넘게 진행된 트럼프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중단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당장 철수시키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그리 할 것이라는 언급도 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 사랑하는 애민 지도자이며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만간 북한이 미사일엔진시험장을 폐기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 일은 미국 역대정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업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북미간 정상회담은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까지는 서로 전쟁 운운하며 긴장을 고조시켜 왔던 점을 생각한다면 회담 개최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해왔다. 이란 핵합의도 탈퇴하면서 불완전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터라 정말 이번이야말로 북한 핵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결과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미간의 고위급회담을 조속히 열어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CVID방식의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6.12공동성명에 CVID를 명문화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속에 CVID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CVID방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2년반 시한내 해결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인 6월 13일 방한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모습 (폼페이오 트위터)〉

북한은 진정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일까?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하루빨리 관계개선에 나서려고 했다면, 왜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CVID라는 표현을 거부한 것일까? 북한은 줄곧 자신들을 핵 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이며 미국과의 협상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임을 누차 강조했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자신들은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을 대변하는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CVID와 북한이 주장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별개의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와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부정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번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20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핵무력완성으로 병진노선은 완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신 전략노선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보유한 핵은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물질과 기술, 장비를 이전하지 않고, 핵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장을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한 후 이는 국제사회의 핵군축노력에 동참한 것임을 밝혔다. 이런 북한입장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빠른 시간에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북한은 핵무력을 매개로 한미동맹 이간과 대남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작년(17년) 8월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첫날 정경두(앞줄 왼쪽)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휘소를 찾은 존 하이튼(앞줄 오른쪽) 미국 전략사령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출처: 합동참모본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CVID 방식의 비핵화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나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억제력의 핵심인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군이 존재하는 한 훈련은 생명이다.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연례적인 연합연습이 없다면 제대로 된 억제력 발휘가 어렵다. 그런데 북핵문제 해결 희망은 점점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연습은 중단될 위기에 있다. 물론, 북한이 우려와는 달리 후속협상에서 CVID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목표시한과 시간표에 따라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길 바란다. 우리는 공고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과거처럼 핵무기를 폐기하는 척하면서 시간만 벌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동을 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한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개되는 지금의 흐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정권이 변화되어야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완전한 비핵화는 평화의 기초가 된다. 이를 이루시도록 주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나의 출애굽기 (5)

● 드보라

그렇게 술에 취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이 계속되고 이렇게는 못살겠다 싶었던 어느 봄이었다. 농촌 일손을 도와주며 일당을 벌려고 도시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에 탈북자로 시골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외지고 어려운데 사는가?” 하며 안타까워했다. 시골은 항상 돈이 없었다. 가을걷이 해도 빚 갚으면 돈이 없었다. 도시에서 오신 분 중 한 분이 우리집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도시 나가면 돈 버는데 많다고 연락 주겠다고 했다. 그 사람의 말이 귀를 맴돌았다. 이 가난에 찌든 외진 시골에서 맘에도 없는 사람과 사는 이 생활이 지긋지긋했다. 그렇게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중에 우리집으로 전화가 왔다. 그때 연락처를 줬던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나는 전화를 받고는 무작정 짐을 싸서 도시로 출발했다.

전화로 안내받은 장소로 어렵게 이동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대뜸 나에게 한국 가자고 했다. 덜컥 북에서 교육받을 때 들었던 안기부 사람인가 싶었다. 나는 절대로 안간다고 했다. 어떤 한국 분이 나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나는 절대 안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벌도록 도와줄 사람이라며 어떤 이상한 남자를 소개하더니 그 사람과 함께 나를 북경으로 보냈다. 며칠동안 기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하니 나를 어떤 큰 건물 지하로 데리고 갔다. 으스스하고 색깔이 빨간 불이 많은 그곳은 사람들이 샤워도 하고 안마도 하는 그런 곳이었다. 조선말 하는 사람이 없고 중국말만 하는 곳이라 나는 나를 데리고 온 사람만 꼭 붙잡고 갔다. 다행히 사장은 연변 사람이라 조선말을 했다.

사장은 나에게 마사지를 배우라고 했다. 그곳에는 오후만 되면 엄청 이쁜 대학생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애들이 단체로 와서 마사지를 했다. 홀 같은데 남자들이 흰 까운을 입고 누워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마사지를 하는 것이었다. 사장은 그 중 어떤 여자한테 나에게 마사지를 가르치라고 맡겼다. 말도 잘 안통하지만 그 아이와 손짓 발짓 해가며 따라서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영 마사지에 소질이 없었다. 나는 열심히 주무르는데 남자가 아파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남자가 화를 내면 어찌 대응할지 몰라서 도망가기 바빴다.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사정을 했더니 한 며칠

데리고 있다가 다른 일을 소개해 주었다. 어느 공안의 집에 어머니를 모시는데 가정부를 하라는 것이다. 공안이라니... 당장 나를 잡아갈 수도 있는 사람 집에서 어떻게 가정부를 하라는 건지 눈앞이 캄캄했다. 게다가 보수도 너무 쪼다. 차라리 전에 있던 마을 인근 도시에서 일하는 것이 더 많이 벌겠다 싶었다. 그래서 안하겠다고 하고 다시 나와보니 또 마사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했다. 그러면서 괜히 감정이 북바쳐서 그냥 다시 집에 보내달라고 사무실에서 울기 시작했다. 다 큰 어른이 사무실에서 울고 있으니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치지 않고 한참을 울었더니 사장이 나를 데리고 기차를 태워서 다시 연결로 보냈다.



〈중국 일반 기차 중 가장 저렴한 잉푸어(硬座: 딱딱한 좌석 기차)의 모습 (자료사진)〉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한 일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다른 험한 곳으로 팔아먹을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런데 기차표까지 사주고 나를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큰 손해였을 것이다. 게다가 북경까지 왔다 갔다 한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나중에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쁘장한 중국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나에게 대뜸 “기차 칸에서 차표 검열 안하디?” 하고 물었다. 신분증 검사를 못해도 2번은 하는데 너는 어떻게 피했냐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신이 아찔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외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시골로 돌아왔다. 그렇게 시골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곳을 벗어나니 막상 갈 곳이 없었다.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고, 특히 돈 벌겠다고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나를 보고 남편은 걱정이

되었는지 술만 마시지 말고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돈을 조금 쥐여주었다. 그렇지만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자주 어울려 놀만한 거리가 별달리 있었겠는가? 그저 모이면 마작을 치는 것이었다. 나도 자연스럽게 마작에 재미를 붙였다. 마작을 하면서 돈을 잃으면 분해서 돈을 빌려서 또 하고 또 잃고 그랬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작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나를 잡으러 왔다. 나는 괜히 집에 가서 또 남편과 싸웠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마작을 즐기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 (자료사진)〉

그렇게 하루 하루 보내던 그 때 우리가 자주 마작을 하던 집에 한국 위성 tv가 들어왔다. 그 집에서 마작을 놀다가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것을 봤다. 그 전에도 한국 드라마가 방송이 안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국어 더빙이 된 방송이었다. 그렇지만 그 집의 드라마는 한국말로 방송이 나오는데 너무 집중되고 몰입이 되었다. 드라마에 빠지기 시작하자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남한이 너무 부럽고 멋있었다. 북에서 알던 그런 곳이 아니었다. 특별히 한국 남자는 남조선 괴뢰도당을 따라 포악하고 악랄한줄로만 알았는데 드라마에서 한국 남자는 정말 보들보들했다. 여자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말도 이쁘게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내 처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혔다. '같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이렇게 고생하고 누구는 저렇게 대우받는가... 괴뢰들이라고 하더니 남한 남자들은 저렇게 잘생기고 때깔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에 심취하다 보니 나중에는 마작도 대충하고 드라마에 빠져들었다. 드라마를 열심히 보다 보니 문득 나도 저런 2층 집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때 즈음 우리는 딸을 낳았다. 그 전에는 애를 안 낳고 버텼지만 다른 탈북자들이 자식을 놓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 시골에는 학교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자식 핑계로라도 나중에 시골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곳 생활을 해나가는 와중에 우연찮게 이전에 거래하던 감옥에 수감되었던 대방하고

연락이 되었다. 그 대방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전에 장사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던 것이다. 애가 막 2개월 되었을 때였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 대방 아저씨였다. 그 대방은 북에 있는 우리 가족도 연락이 닿은 상태였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북한의 가족까지 찾을 수 있었다. 대방에게 돈을 받지 못했던 형부는 결국 망하고 집은 이사를 가야만 했지만 다행히 감옥까지는 가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가족들에게 송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과의 연결점을 찾았으니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 일로 남편과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싸우기가 일쑤였다. 비료는 외상으로 사는데 곡물 값은 너무 저렴해서 돈이 안되니 가을에 밭을 갈으면 남는 것이 없었다. 그 와중에 나는 조금이라도 북의 가족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에 송금을 하려고 했고 남편은 돈이 없다고 막았다. 겨우 북의 가족과 연결이 되었는데 제대로 돕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다. 남편이 미웠고 가난한 집구석이 싫었다. 그 사이 우리 시골에도 단속의 손길이 뻗쳐왔다. 하루는 밤에 공안이 와서 아기가 없는 탈북자 2명을 잡아갔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 우리는 아마 아기가 있어서 그나마 안잡아 갔던 것 같다. 너무 불안했다. 시내로 가면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는 종종 대대적으로 탈북자를 잡으러 다니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시내의 남편 친척집에 숨어있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전에 아는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남한행을 권유하셨다. 하도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니 한국행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나도 불안에 떠는 차에 드라마를 통해 본 남한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남한행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전에는 남한에 가기는 커녕 남한 사람도 안만나려고 했었던 내 모습을 생각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하고 수소문을 해서 어떤 브로커와 연결이 되었다. 아직 어린 딸아이가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내가 한국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돈을 쓰면 아이는 데려올 수 있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 그리고는 연락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했다.

마침내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다. 드디어 한국행이다. 약속장소로 가기 전, 딸 아이를 옆집에 맡겨놓았다. 그 아이는 평소에는 엄청 순해서 혼자도 잘 있었다. 어디 맡길 때가 없을 때는 재워놓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일하다가 다시 집에 와서 젓 먹이고 다시 일하러 가기도 했다. 그런데 평소에는 맡겨도 칭얼대지 않던 아이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울었다. 아이에게 시장 다녀 오겠다고 달랬지만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웬지 이전에 북에서 놓고 온, 나를 배웅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났다. 그렇지만 나는 애써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눌러 담았다.

어쨌든 남한에 가면 아이도 다시 데려오고 돈을 벌어 북에 송금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불안감을 억누르며 약속장소로 왔다. 아직 브로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약속장소에서 언제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남자가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왔다. “남한 가시는거죠?” 나는 이 사람이구나 싶어서 “네, 맞습니다.” 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을 이어서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지갑을 열어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공안증이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주위를 이미 몇몇의 사복입은 공안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올가미였다. 신고 받고 온 공안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국 공안에 붙잡히고 말았다. 꿈꾸던 남한에서의 생활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 <계속>



1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공동성명 서명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단독 회담을 앞두고 악수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 김정은 위원장>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3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대통령은 얼마전까지 서로를 비난하던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은 비공개로 약 40분간 진행되었고, 뒤이어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확대 정상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고, 북한 측에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나왔다.

약 1시간 40분간 이어진 확대 정상회의 이후에는 업무 오찬과 공동성명 서명이 이어졌다. 공동성명은 1항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항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항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4항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로 이루어졌다.

이번 성명에는 앞서 미국이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미래 개념으로 담아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급 인사가 이끄는 추가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

또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비핵화를 거듭 언급했다.

아울러 “역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수 십 년 간 이어진 두 나라의 긴장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을 인정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데 전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협상을 빠른 시일 내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검증 작업에 대해서 김 위원장과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비핵화 협상 중 미한 연합군사훈련 하지 않을 것”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위게임”으로 호칭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훈련이라고 지적하며 아울러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북한도 아주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미군 2만 8천 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군과 봄에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가을에 을지포커스프리덤훈련 등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관해서는 미-북 협상에서 풀어야 할 방정식의 일부는 아니라면서도 어느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6월 18일 8월로 예정된 방어적 미-한 연합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유예한다며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훈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18일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일관되며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 아래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하고 있다며 추후의 ‘위게임’에 대해선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훈련 ‘중단’이 아닌 ‘유예’라고 밝힘으로써 훈련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소극적일 경우 언제든지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위게임(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요구였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훈련을 재개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 전격 방중…시진핑과 세 번째 정상회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인 19일에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방중이다. 이날 인민대회당 실내에서 거행된 환영의식에는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함께 중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미북 쌍방이 정상회담 성과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시한다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양국민의 우호관계, 그리고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개선 등 자국 사정에 맞는 발전노선을 걷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촉진과 평화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측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4

김정은 방중간 행보… 북중 협력 및 개혁개방 의지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기간인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회동을 하고 '새로운 정세'에서 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김정은의 방중을 '새로운 정세'에서 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정세'는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양측이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중이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며 대응 전술을 긴밀하게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2일차 행보가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과 개혁개방 의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중 이틀째인 20일 오전 시 주석의 측근인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의 안내로 중국 농업과학원, 국가농업 과학기술 혁신단지, 베이징시 궈도 교통 지휘센터 등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일정은 북한의 농업 개혁과 철도 연결 사업 등을 염두에 둔 행보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곳은 모두 지난 5월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방문했던 장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이징시 궈도교통지휘센터 참관하는 김정은 (베이징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수행한 인사들 가운데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태성 당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와 과학,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인사들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

북, 미북정상회담 이후 주민통제 강화



〈거리 걷는 평양 시민들 (RFA 자료사진)〉

북한당국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자본주의 황색문화 경계령을 내리고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투까지 단속 대상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 (RFA)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규찰대에 의해 주로 주민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 등 외모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리고(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앙에서 도급 간부들에게 비공개 기록영화(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는데 비사회주의와 퇴폐적인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깨끗이 쓸어버리자는 내용이었고 주로 규찰대의 단속 대상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또 “규찰대는 109그룹 소속 ‘노동자 규찰대’와 청년동맹소속 ‘불량청소년 그룹’으로 구성되었다”면서 “이들 규찰대는 노동당조직지도부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어 당간부와 군대까지 단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군중정치국을 통해 군부대들에도 규찰대의 단속에 군인들은 순응하라는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만약 규찰대의 단속에 반항하면 당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6일 “요즘 거리마다 규찰대가 늘어서 있어 주민들이 외출하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옷차림의 모양과 색깔, 길이, 머리 염색까지 단속해 벌금을 매기거나 심한 위반자는 노동단련대에 보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소식통은 “옷차림 중에는 그물모양의 긴양말(스타킹)과 영어 글자가 있는 샤쓰(셔츠), 짧은 치마(미니스커트), 키 높이 단화(하이힐)도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손가락만한 영어 글자가 있으면 그 위에 천리마동상이나 다른 그림을 덧대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전문적으로 수선해주는 점포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최근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길 가던 한 여성이 머리를 염색한 혐의로 단속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여성은 천성적으로 갈색 머리를 지녔는데 머리 염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친구 2명을 데려와 이들이 보증을 선 후 풀려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참고: RFA, 6월 19일)

6

남북, 7월 평양서 통일농구경기 개최...8월 AG 공동입장 합의



〈6월 18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체육회담'에서 전총련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왼쪽 두번째)과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북이 7월 4일을 전후로 평양에서 통일농구경기를 열기로 합의했다. 8월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판문점에서 열린 체육회담에서 남북이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전총련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양 경기에 남녀 선수단 합해서 100여 명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방식은 남북 선수 혼합경기과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가 열리는 7월 4일은 남북 당국 간 첫 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날로 이를 기념해 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은 또 오는 8월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에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입장 시 단일팀 명칭은 '코리아', 깃발은 한반도기, 노래는 아리랑으로 정했다. 특히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2018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등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이며 남북 통일농구경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참고: RFA, 6월 18일)

7

중 세관, 북 수출입 화물검사 대폭 완화



〈중국 세관원이 단둥에서 북한으로 가는 화물트럭을 검사하고 있다. (RFA)〉

중국 해관(세관)당국이 최근 북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색을 크게 완화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최근 “요즘 조선으로 나가는 화물차에 대한 검사가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다”면서 “화물차에 대한 X레이 검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관원이 실물을 일일이 전수 검사하던 것이 지금은 전체 화물차의 절반 정도만 화물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화물차 운전수가 화물 사이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대북제재 품목이 적발되어도 전 같으면 그 화물차를 하루 붙잡아두고 벌금을 납부해야만 통관시켜 주었지만 요즘엔 적발된 물건에 한해 벌금을 물리고 나머지 화물은 바로 통관을 시켜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해관검사가 이렇게 느슨해지자 조선 트럭 운전자들의 물품에 없는 물건 끼워 넣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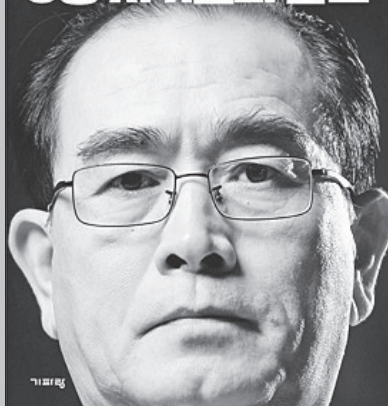
중국 단둥의 한 주민 소식통은 13일 “조선에서 단둥으로 나오는 사사여행자에 대한 통관 속도도 한결 부드러워졌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주민들이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짐 가방은 대부분 중국 해관이 열어볼 것을 요구했으나 요즘에는 X레이 통과만으로 검사를 마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술이나 담배의 경우, 지금까지는 술은 한 병, 담배는 한 막대기(보루) 외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술은 두세 병, 담배 두 막대기 이상을 소지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한 임가공무역업자는 “조-중간에 성행하는 밀무역 단속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선에서 의복을 임가공해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조선에 원자재를 들여보낼 때나 완성된 옷을 다시 가져올 때 모두 압록강 밀수선을 이용하는데 전에 비해 일하기가 수월해졌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임가공품을 실어나르는 밀수선박에 대한 중국 변방의 감시가 심해 물건을 운반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으나 최근에는 감시가 느슨해져 화물 운반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설명했다.

(참고: RFA, 6월 14일)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제목: 3층 서기실의 암호

저자: 태영호

출판사: 기파랑

출판일: 2018년 5월 15일

가격: 20,000원

최근 서점가를 강타한 논란의 중심이 된 책이 있다면 단연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일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북한의 핵 포기 의사 표명과 종전 논의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태영호씨의 책은 큰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특별히 이 책에서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현 정권이 북한에 속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대편에서는 이 책에 대한 평가 절하 또는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책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되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논란은 어쨌든 이 책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었다. 북한 관련 서적으로는 흔치 않게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런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집어들었다. 책을 읽어보니 반향이 뜨거울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의 탈북자들의 수기나 증언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국제 관계와 외교 분야의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김정일, 김정은의 의사결정과 숨은 생각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북한의 대외 정책 결정과 외교적 전략 전술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외교 전략과 역량을 다시 진단하고 파악하는데, 김정은의 대외 정책을 예측하고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태영호 전 공사가 경험한 북한의 엘리트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흥미로웠다. 북한의 외무성을 중심으로 당 조직지도부와 군부와 정부, 그리고 그간 잘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김정은의 비서실인 3층 서기실까지 흔히 들을 수 없는 귀한 정보들이 많았다. 이 책의 제목인 '3층 서기실의 암호'가 언급된 에피소드는 김정철의 에릭클랩튼 공연 관람이다. 북한과 관련하여 이정도 최근의, 고위층과 연관된 일화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비사를 언급한 책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가지고있는 강점이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 책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 핵개발을 지상 과제로 삼고 벼랑끝 전술과 화전 양면 전술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마침내 그 성과에 거의 다다랐으며 북한이 핵을 절대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이 핵 포기를 이야기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이 생소한 상황이 이 책을 논란거리로 만든 것 같다.

솔직히 현재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핵 폐기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의 핵폐기가 완전하게, 복구 불가능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순한 '동결'이나 '중단' 정도로는 안된다.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차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시 북한의 간교한 계략에 놀아나서 핵 폐기는 흐지부지 되고 북한 체제만 공고해 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북한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나는 이 때에 이 책이 출간되자 어떤 이는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속이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로 이 책을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이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초를 치는 행위'라고 여기고 이 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두 입장 모두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이 책을 단순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 싶다.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책을

바라본다면 더욱 유용하게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책에 담긴 고급 정보를 활용할 생각은 못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매도하며 이 책과 저자인 태영호 전 공사를 핍박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또 이 책을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또는 ‘우리는 북한에 속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오히려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야기도 있었다.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를 김일성 신격화와 유사종교체제 확립으로 꼽았다. 그로부터 북한은 사회주의에서 봉건사회로, 그리고 이제는 노예 사회로 퇴행을 거듭했다고 진단했다.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수령과 지도자 중심의 체제 유지를 위해 얼마나 발버둥쳤으며 외세의 압력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를 타파하고자 애쓰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감탄이 나올만한 배짱과 전략으로 미국과 남한을 이용하고 나름의 성과를 낸 것도 보았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북한 체제의 필연적인 쇠퇴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책을 읽으며 북한 체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바깥 세상을 경험하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자신과 가족의安危가 흔들리기에 애를 써가면서 어떻게든 ‘수령님을 보필하고자 하는’, 나름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 처지가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권력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에 빠진 독재정권의 추악한 민낯과 그 밑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체제의 존망에 대한 위기 때문일까, 김정은은 지금까지 고생해서 개발한 핵을 이용한 큰 정치적 밑그림을 그리는 듯 하다. 알려지기로 김정은의 야심은 북한을 싱가포르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잘 통제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정치적인 카드로 ‘핵’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야심찬 김정은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당장 북한이 핵폐기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체제 보장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거리가 많다. 핵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많은 악행을 저지른 이 체제를 지원하는 꼴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서평에 다룰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런 의문에 대해 필자는 태 전 공사의 책을 통해 김정은이 만약에 자신을 여전히 자신의 할아버지때로부터 시작했던 우상숭배적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김정은의 야심찬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한 두가지 전략적 성과로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고 일시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의 생각은 변화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다가왔다. 특히 지금까지 북한이 겪어왔던 역사적 여정 자체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북한이 여전히 권력 유지를 위해 반인반신의 허구적인 종교체제를 붙잡고자 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변명을 꿈꾼다면 그 시도는 결국 처절하게 실패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변화를 선택하고 이전의 과오를 참회하며 현 체제의 과오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혹시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북한이 이런 변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


국제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하루를 금식의 날로 제안하면서 15가지 기도제목을 제안했다. 이 기도제목들 중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은 각각 ‘종교의 자유’, ‘수용소의 기독교인 석방’, ‘김일성 3대에 대한 우상숭배 중단’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 오랜 악행을 끊어버리는 것부터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제목들이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데 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야 국가간의 거래와 비열한 계략을 넘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태영호 전 공사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는 북한의 엘리트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그간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의 외교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흔치 않은 책인 만큼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꼭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라 생각된다.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일독을 권하며 서평을 마무리한다.





6월 12일(화)에 열리는 세계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하루 앞선 6월 11일에 하루 금식하며 하늘 하나님께 24시간 기도할 것을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세계의 성도들이 이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제목들은 단지 북미 정상회담 만을 염두한 일회성의 것이 아닌, 이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픈도어에서 제안한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눅18: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16:23)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후 10:4)

그 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마17:19-21)

오픈도어에서 제안한 15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IMPORTANT, INFORMED PRAYERS FOR U.S.-NORTH KOREA SUMMIT

Pray that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s historic meeting on June 12 will be the first in a series of actions that sets Korea on a new course of religious freedom.

6월 12일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종교의 자유를 가져오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Kim will be convinced to release the more than 50,000-plus Christians unjustly held in detention centers and prison camps throughout the country.

김정은위원장이 북한 전역에 노동교화소에 부당하게 구금 되어 있는 5만 여명의 기독교인들을 석방하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Kim will loosen age-old requirements that residents attend indoctrination classes and display and bow to Kim family portraits.

북한 내에 김일성 3대 초상을 걸어두고 절하며 숭배하게 하는 악행과 세뇌교육을 끊어버리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Kim will lift information embargoes and allow his people greater access to radio shows, TV programs, and websites.

정보 통제를 해제하여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와 TV, 인터넷 등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의 정보를 바르게 접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Kim will allow for the creation of new churches where North Koreans can freely worship outside of the one “show church” that currently exists.

북한 내에 어용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existing believers within North Korea would take courage to lead a new revival of the Christian faith in North Korea.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 북한 내에 기독교 신앙의 부흥을 위해 일하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the underground church in North Korea would grow in boldness and be ready for widespread evangelism efforts when the opportunity arises.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담대함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되기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extended families who have been separated across North and South Korea may be reunited.

남북한 간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들이 다시 합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organizations like Open Doors will be allowed access to provide Christian training and resources to believers in North Korea.

오픈도어와 같은 선교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훈련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other relief and aid organizations would gain entrance to provide relief aid, trauma care, and other needed services.

일반 구호 및 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 구호 활동과 트라우마 치료 활동 등 필요한 섬김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North Korea's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will find reform—that children will no longer be forced into labor, that preschoolers will no longer be indoctrinated, that roadways will be made safe.

북한의 경제 및 사회인프라 구조를 새롭게 하고 도로망이 안전 해지며, 아동 노동과 취학 이전 아동들에게 세뇌 교육 시키는 것이 근절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North Korea's food supply would be enriched through education and increased trade, so that the 2 in 5 who are currently undernourished will be provided with adequate nutrition.

교육과 무역을 통해 북한 내 식량 생산 증대와 공급이 원활해져서 5명 중에 2명 꼴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주민들이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God will give North Korean people wisdom to sift through the many nationalistic and mythical storylines and propaganda they have been fed throughout their lives.

북한 주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간 일생에 걸쳐 세뇌되어온 국수적이고 신화적인 거짓 선전으로 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parents will ultimately be able to freely share their faith with their children and raise them to know Jesus.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Pray that U.S. and other world leaders would put in place the right sanctions, pressures, encouragements and opportunities to restore peace and well-being for Nor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북한과 인근 지역에 참다운 평화와 안녕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세계 리더들이 북한 내에 적절한 제재와 압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격려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기도 바랍니다.

북한 기도 제목

1.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미 회담의 성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은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 및 방안이 앞으로 협의될 예정입니다. 평화 가운데서 북핵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국 리더들과 주요 협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국가 안보와 앞으로의 외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며 이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연합훈련을 비용적으로 접근하고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철수를 시사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미간의 군사 공조와 준비 태세는 앞으로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담의 결과가 자칫 국가 안보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3. 남북 교류 문제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확대될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 협력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통일과 북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 정권만 배불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거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복음보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북 교류 활성화가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그 통일이 복음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 평화로운 통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핵 문제가 북한의 모든 부조리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 내의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으며, 복녔의 형제, 자매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해 받는 복녔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며, 고단한 생활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을 비롯해서 성경과 복음 서적 등 신앙 자료들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기도 제목

5. 북한의 우상숭배적인 체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는 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힘써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종교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신적 숭배를 강요한다면 기독교 박해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짓된 체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 북한 내에 공정과 정의가 이뤄지도록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이 기존의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존중하는 것임을 북한이 깨닫고 변화하도록 기도합니다.
6. 중국 내 북한 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여성에 대한 단속, 체포와 복송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안과 북한 요원들의 위협을 넘어서 이제는 중국 당국이 시골 마을 촌장들까지 동원하여 탈북여성을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족과 생이별하는 아픔에 노출된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하루 속히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강제 복송을 중단하도록 기도합니다.
7.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는 화해 분위기이지만 북중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 감시와 통제 및 탈북자 추적 활동은 오히려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선교사 추방뿐만 아니라 현지 조선족 교회들에 대한 강화된 통제로 많은 교회가 북한 선교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처에 도사린 위협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